

文대통령, 오늘 신년사 발표... '코로나 극복·선도국가 도약' 방점

회복·통합·도약 화두 예상...사면론 언급 안할 듯

대북 메시지 주목...한미연합훈련 등 비판 응답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집권 5년차를 맞아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일상 회복을 약속하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대북 정책 기조와 미중일 등 주요국에 대한 외교 정책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심이 집중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관련 내용은 언급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신년사의 큰 뼈대는 '회복', '통합', '도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신년 인사회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세 가지 화두다.

우선 문 대통령은 내달 백신 접종 등을 시작으로 1년 가까이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해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본격 실행,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제 등을 적극 추진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심이 쏠리는 건 '통합'이란 키워드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관련 언급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인사회 인사말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는데 이 '통합'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이유로 든 '국민 통합'을 연상시키면서 일각에서 '사면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통합'을 언급한 맥락은 피해계층의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뜻하는 취지였다"며 "사면을 시사한 것으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보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판결이 예정된 상황에서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사면 관련 직접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통합'이란 화두를 제시하더라도, '사면론 시사'가 아닌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의 연대와 협력'의 맥락에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년사에 담겨온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상 및 대북 메시지도 주목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대회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대남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가운데, 이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답변'이 신년사에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북남 관계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협력, 인도

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등 제안에 대해서는 "비본질적 문제"라고 짚고, 첨단 군사장비 반입, 한미연합훈련 시행 등을 언급하며 "북남합의 이행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 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은 겨레의 염원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일 신년 인사회 인사말 말미에서 "여건이 허용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한 만큼, 김 위원장에게 관련 화답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외교 정책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8일 우리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을 두고 일본 측이 "매우 유감"이라며 강력 항의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1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등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이듬해 이어진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 이후 한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관련 메시지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분야 관련 국정운영의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은 민생 현안 중 최고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천명할지 관심이 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주거 안정 또한 중차대한 민생 과제"라면서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사에서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나경원 '아내의 맛' 출연, 국민과 새로운 대화...박영선 편 기대

"진영 초월해 가족 소중히 여기는 마음 느껴"

나경원 전 의원이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 출연한 것에 대해 "국민들과의 새로운 의미의 만남이자 대화였다"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일 방영된 '아내의 맛'에 대한 이야기를 늦게나마 좀 드리려 한다"며 "진솔하게 저와 제 가족이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했고 다행히 많은 시청자들께서 공감해주셨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특히 저희 유나(딸)에게 해 주신 격려는 유나는 물론 저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자 응원"이라며 "정치와 이념, 진영을 초월해 가족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저는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고 적었다.

또 "방송 내용도 내용이지만, 촬영 과정도 참 기억에 남는다"며 "인기 진행자부터 보조 스태프까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해주셨고 또 편하게 대해주시기도 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고 "날도 추운데 스태프들이 고생할까봐, 저희 친정 아버님이 보통은 산책 하시면서 두 번 정도를 쉬시는데 그 날은 한 번만 쉬고 계속 걸으셨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감기 기운이 들었다고 하신다"며,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고 "곧 있으면 박영선 장관의 이야기도 나온다"며 "박 장관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 줄지 궁금하고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TV 예능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비판이 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출연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사진=TV조선 '아내의 맛' 제공)

기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거 때는 출마 의사가 분명한 사람들은 부르면 안 된다"며 "명백히 선거에 활용된다"고

비판했다. 정호석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치인의 예능 방송 출연은 편파적인 방송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스

양경숙, '아동학대 방지 4법' 개정안 발의

입양 부모, 사전에 아동학대예방 교육 이수해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입양자격을 정신건강도 포함하도록 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아동학대 방지 4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양친이 될 자격 기준에 양자를 부양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을 포함해 가정법원의 심리검사를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양 부모가 사전에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예방 교육도 이수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 직무범위를 아

동학대범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임용할 때 2년 이상의 사회복지업무 경력을 가지도록 자격조건을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냈다. 개정안에는 업무 지속성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의무 실무교육 및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한 경찰의 초동조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 절차 안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